

Quine 哲學의 非本質主義的 傾向

李 秉 昱

序 論

0.1. 分析-綜合의 兩分法과 現代 經驗主義

“어떻게 先天的 綜合判斷이 가능한가?” : 이 물음이 Kant 를 純粹思辯理性的 批判으로 인도한다. 반면 現代 經驗論者¹⁾ 들은 소위 선천적 종합판단이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그 가능근거를 물을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제 비판철학의 과제는, 그 전제를 부정함으로써 해체된다. 이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윤곽에 있어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듯 하다.

1. 모든 眞理는 分析的이거나 綜合的이다.
2. 모든 分析的 眞理는 先天的, 必然的이며,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모든 綜合的 眞理는 經驗的, 偶然的이며, 원칙상 수정가능하다.

3. 분석적 진리는 세계에 관한 지식을 확장해주지 않는다 : 일단 언어를 습득하면,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분석적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종합적 진리는 지식을 확장해 준다. 언어를 습득한 후에도 사실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종합적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경험주의의 이와같은 주장이, 경험주의 내부에서도 확정적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分析的 眞理와 綜合的 眞理의 엄격한 兩分法²⁾에 대한 비판을 고찰함으로써 시도되며, 그 모범으로써 선택된 것은 Quine 의 批判이다.

0.2. 現代 經驗主義의 本質主義的 傾向

本質主義, 내지 Aristoteles 的 本質主義란 對象自體에 本質的 屬性이 있다는 입장이다.³⁾ 이와 같은 본질주의의 주장은 다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1) 여기서 “현대”란 분석-종합의 구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입장에서 현대를 말한다. 이 비판은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및 Goodman, White, Waismann에 의해 제기된다.
- 2) 앞으로는 단순히 兩分法(dichotomy), 또는 二元論(dualism)이라 약칭하겠다.
- 3) Quine,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p. 155.

1.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 ;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의 구별.

2. 적어도, 필연적 속성, 내지 진리의 일부는 대상자체의 성격에 근거한다.⁴⁾ 요컨대 본질주의는 1.을 전제하고, 2.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글은 “본질주의,” 내지 “본질주의의 (of essentialism)”와 “本質主義的”(essentialistic)이란 말을 구별하고, 본질주의가 전제로 삼고 있는 1.을 받아들이는 모든 입장을 本質主義的이라 부르자고 제안한다 : 본질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입장이 주장 1.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1.을 설명하기를 시도할 수 있다.

경험으로는 무엇이 사실상 어떻다는 것(우연성)만 인식할 수 있을 뿐, 무엇이 반드시 어떠해야만 한다는 것(필연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 주장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온 듯하다.⁵⁾ 그렇다면 필연적 진리는, 인식가능하다면, 오직 선천적으로만 인식가능하다. 이것이 아마도 先天的 眞理와 經驗的 眞理를 구별하는 동기일 것이다.⁶⁾

Carnap, Lewis를 비롯한 現代 經驗論者들은 선천적 종합판단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이들은 선천적 진리를 분석적 진리에 흡수시키고, 필연적 진리의 존재를 언어에 의해 정당화시키고 있다.⁷⁾ 요컨대 이들은 대상을 서술하는 방식에 상대적인 한에 있어서만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을 구별한다.⁸⁾ 따라서, 이들은 본질주의를 거부하지만, 본질주의의 전제 1.을 받아들이고, 이를 分析的 眞理와 綜合的 眞理의 구분으로써 설명한다. 이제 이 구분 및 그 근거가 되는 言語와 事實, 意味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간의 양분법을 경험주의가 받아들이는 本質主義的 傳統이라 규정하겠다.⁹⁾

4) 이는 ‘대상자체의 양상성’(de re modality)의 인정이다.

5) 이 주장은 Kripke가 “形而上學的 必然性 (metaphysical necessity),” “認識的 必然性 (epistemic necessity)” 등 관련된 개념들을 구분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다는 전제된 듯 하다. Kripke는 필연적 진리가 경험적으로 인식가능함을 주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본질주의를 정립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Quine의 비판을 면할 수 있다. Kripke, “Naming and necessity”, p. 260 ff, “Identity and necessity”, p. 88.

6) 선천적 진리와 경험적 진리의 구별이 필연적 진리와 우연적 진리의 구별을 인식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라면, 전자는, 후자를 전제하는 점에서, 본질주의적이라 규정할 수 있겠다.

7) 이는 ‘언어에 의한 양상성’(de dicto modality)의 인정이다.

8) 예컨대 Wittgenstein은 모든 필연성이 논리적 필연성이라고 한다. Corrado, M, The Analytic Tradition in Philosophy, Chicago: ALA, 1975. p. 15

9) Quine은 위 구분을 Aristoteles적 본질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Two dogmas of empiricism,” p. 22 또 White, M. p. 318f 및 p. 330.

0.3. 現代 經驗主義의 本質主義의 哲學觀

이러한 본질주의적 사고는 철학이 경험과학이상으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견해와 손잡기 쉬운 것이고, 이 양자의 결합은 모든 철학적 작업이 意味의 明瞭化라거나, 모든 철학적 문제가 이로써 해결 내지는 해체된다는 철학관을 야기한다. 이 글의 의도는,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세계로부터 철학의 철수가 아직 시기상조임, 또는 이러한 철학관이 반드시 철학과 소위 경험과학의 엄격한 구별 및, 나아가서 세계로부터 철학의 철수를 함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철학관에 이미 전제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것과 결합하기 쉬운 본질주의적 경향은 언어에 관해서 말하는 철학 내지 分析哲學과, 사실을 다룬다는 소위 경험과학을 엄격히 구별시킨다. 이제 철학은 세계에 관해 전혀 언급할 수 없거나, 과학의 개념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세계에 관계한다 ; 반면 경험과학은 직접 세계와 관계한다.

앞에서 철학과 경험과학의 엄격한 구별이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의 양분법에 근거한다 했고, 또 후자를 본질주의적 사고라 규정했었다. 이제 전자를 함축하는 철학관을 본질주의적 철학관이라 규정하겠다.

이제 후자의 구별에 대한 비판은 경험주의의 본질주의적 경향에 대한 논박이며, 이 논박은 그 본질주의적 철학관에까지 미친다. 이 비판에서 Quine 은 :

1. 진리를 이루는 언어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를 엄격히 구분하고,
2. 이에 근거해서 “分析的 眞理”라 불리는 원칙상 경험에 의해 수정 불가능한 진리¹⁰⁾가 있음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봉쇄하려 한다. 이 두 주장에 대한 Quine 의 비판에 대한 고찰이 이 글의 본론을 이룬다.

本 論

분석적 진리는 언어의 의미에만 근거해서 그 참임이 확정되고, 따라서 사실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참이라고 한다. 이들은 Quine에 따르면 다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논리적 진리¹¹⁾ : 예) 모든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All unmarried men are unmarried men.)

10) 이는 종래에 선천적 진리가 가진다고 주장되었던 성격이다.

11) 전통적으로 “논리적 진리”는 둘째 부류까지 포괄한다. 반면 위와 같이 분류함은 Quine 이 첫째 부류의 진리는 외연적 기준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분석적 진리 : 동의어들을 상호교환함으로써 논리적 진리로 바꾸어질 수 있는 문장. 예) 모든 총각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다. (All bachelors are unmarried men)¹²⁾,¹³⁾

분석적 진리는 언어와 논리에 의한 진리다. 만약 논리적 진리의 언어이론¹⁴⁾ 이 받아들여진다면 분석적 진리는 단적으로 언어에 의한 진리, 즉 엄격한 의미에서의 "분석적 진리"¹⁵⁾이다. 이에 대한 Quine의 입장은 다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둘째 부류의 진리까지 '분석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현재는 양분법의 일반적 기준마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동의어 내지 분석적 진리의 예들과 다른 진리들도 이처럼 언어에 의존한다는 주장뿐이다.

2. 논리적 어휘들만 주어진다면, 논리적 진리의 구별기준은 확정적이다.¹⁶⁾ 이제 문제는 인식론적 주장으로서의 言語理論 (linguistic doctrine)이고, 이 이론은 주장하는 바가 명백하지 않으며, 설명력이 없는 사이비 이론이다.

1. 分析-綜合의 兩分法의 문제

Quine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의 구별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분석성의 認識論的 試驗基準(criteria in epistemological test for analyticity).
2. 분석성의 形式的 試驗基準(criteria in formal test for analyticity).
3. 분석성의 行動主義的 試驗基準¹⁷⁾ (criteria in behavioristic test for analyticity).

12) 이 문장은 "총각"을 동의어인 "결혼하지 않은 남자"로 바꿈으로써 논리적 진리가 된다.

13) 이들은 Aristoteles의 본질적 술어화(essential predication)에 의한 진리, Locke의 사소한 명제(trifling proposition)에 해당한다.

14) linguistic doctrine of logical truth : 모든 논리적 진리는 순수히 언어에 의해 참(true purely by virtue of language)이라는 주장.

15) "분석적 진리"란 말은 언어에 의해 참이라는 함축을 지닌다.

16) 더우기 초등논리(elementary logic)에 대해서는, Gödel의 完全性整理(completeness theorem)이 보여주듯, 좁은 의미에서의 통사적 정형화(narrowly syntactical formulation)조차 가능하다. Quine, "Carnap and logical truth" p. 130.

17) 분석적 진리의 "인식론적 시험" 및 "形式的 試驗"이란 용어는 J. Passmore가 A Hundred Years of Philosophy (Penguin Books, 1968). p. 114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行動主義的 試驗"이란 말은 이 글에서 처음 사용해 보았다.

1.1. 인식론적 시험기준과 환원주의

1.1.1. 잘못 이해된 中心性

분석성의 인식적 기준은 意味의 檢證理論(verification theory of meaning)에 따라 제안된다. 이에 따르면 “어떤 진술의 의미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확증(confirm) 하거나 부증(disconfirm)하는 방법이다.” 이제 분석적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확증되는 극단적 경우이다.¹⁸⁾ 결국 “분석적 진리”란 원칙상 경험적으로 수정불가능한(irrevisable in principle)진술들의 집합에 붙이는 명칭이다.¹⁹⁾ 이런 기준에 대해 Quine은 검증이론 자체를 검토함으로써 논박한다. 검증이론은 경험의 진술의 진리치에 관계한다고 한다. 그러면, 경험과 진술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에 관한 가장 소박한 이론은 환원주의다. 이에 따르면, 모든 유의미한 진술은 모두 직접적 경험에 관한 진술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주장은 Carnap의 “세계의 논리적 구조(Logische Aufbau der Welt)”에서 처음 실행에 옮겨진다. 여기서 감각자료언어(sense-datum language)와 논리적 언어를 포괄하는 경험주의적 언어(empiricist language)로서 모든 과학적 언어의 재구성이 시도된다. 이 시도에 대해 Quine이 제기하는 원칙상의 난점은 다음과 같다 : Carnap은 “특성 q가 시간-공간 좌표 $x : y : z : t$ 에 있다.” (Quality q is at point-instant $x : y : z : t$.)는 진술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이 진술 또는 이 진술의 술어 “-에 있음”(is at)가 어떻게 경험주의적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문장 차원의 환원주의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독단에 불과하다. 이처럼 환원주의가 견지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면, 문제는 검증이론조차도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환원주의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다른 진술들과 독립된 개개의 진술들이 경험적으로 확증(confirm) 또는 부증(disconfirm)될 수 있다. 이제 환원주의가 견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주목하는 Quine의 提案(supposition)은 다음과 같다 : “외계에 관한 우리의 진술들은 개별적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결합된 전체로서만 감각

18)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p. 37.

19) Quine은 추상적 실재로서의 意味를 인정하지 않으며, 意味理論(theory of meaning)은 “有意味的”(significant; having meaning)과 “同意的”(synonymous; alike in meaning)의 두 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Quine,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p. 48. 이제 검증이론 및 분석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a. 검증이론 : 진술들은 경험적 검증의 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서로 동의적이다.

b. 논리적 진리와 동의적인 진술은, 분석적이다.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p. 37f.

적 경험의 심판에 직면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적 진리는 최대한 수정으로부터 면역되어 있음에(maximum immunity from revision) 불과하다. 이는 저들이 전체 지식체계내에서 가지는 고도의 체계화 기능에 근거하며, 오히려 ‘中心性(centrality)’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감각적 경험과 직접 반응하는, 지식체계의 말단(periphery)으로부터의 상대적 격리를 뜻하며, 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이를 질적인 차이로 오해하고, 소위 분석적 진리를 절대적으로 수정 불가능한 것으로, 반면 모든 종합적 진리를 동일한 성격으로, 즉 개별적 경험에 의해 수정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양분법이 받아들여는 오류다. Putnam의 표현을 빌면 분석성은, 이런 점에서, “잘못 이해된 중심성”(misconceived centrality)이다.²⁰⁾

1.12. Lewis, Carnap; Mill과의 비교

Carnap은 언어적 틀(linguistic framework)의 선택에 관한 ‘外的問題’(external question)와 그것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內的問題’(internal question)을 구분한다. 분석적 진리는 일단 언어적 틀이 선택되면 동시에 결정된다. 또 후자가 理論的 問題로서, 언어들의 성격에 따라 분석적 또는 경험적으로, 진위가 가려지는 반면, 전자는 사실은 어떤 언어틀 선택의 유용성을 묻는 實用性의 문제로, 진위가 아니라 다만 정도에 관계하는 사이비 문제(pseudo-problem)라고 한다.²¹⁾ 또 C. I. Lewis에 따르면: “선천적 진리와 후천적 진리간의²²⁾ 구분선은 어떤 경험에 대해서도 유지될 수 있는 원리 및 정의적 개념들과 명백히 위임이 증명될 지도 모르는 그런 성격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험적 일반화간의 구분선이다.”²³⁾ 이들은 모두 분석적 진리의 근거를 언어틀을 도입하는 任意規約(convention)에 두고, 후자의 선택근거를 실용성에 두지만, 이 선택에 이론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Quine은 상기 입장을 부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 입장을 소위

20) Putnam, “The meaning of ‘meaning.’” p. 254.

21) Carnap, “Empiricism, semantics and ontology.” p. 206. 이 입장은 원래 Quine, “On what there is.”에서 주장되는, 이론의 “존재론적 함축”(ontological commitment) 개념에 대한, 논리실증주의 입장에서의 반박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이 입장은 철학일반의 성격에 대한 입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22) Lewis에 있어서 선천적 종합명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The modes of meaning.”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Rosenberg, J. F./ Travis, C., eds.) p. 18. 따라서 위 기준은 곧 분석-종합의 인식론적 구분기준이 된다.

23) C. I. Lewis, “A pragmatic conception of the a priori.” p. 283.

종합적 진리, 경험적 가설 일반에까지 확장하는 철저한 實用主義를 취한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여전히 양분법이고, 실용적 고려하에서 받아들여짐은 경험적 가설 일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성격이며, 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이다.

이제 논리 및 수학적 진리의 확실성의 근거를 제공할 수 없었던 J.S.Mill의 입장과 비교될 수 있다. Mill이 보듯 모든 진리가 귀납에 의한 경험적 일반화로 확인된다면,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귀납의 문제(problem of induction)가 일어난다: 모든 진술은 개별적 경험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양분법을 인정하되, 분석적 진리의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Quine은 종합적 진리 일반을 동일하게 보게하는 분석-종합의 구분자체를 부인한다. 어떤 개별적 진술이 경험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인되는 듯 하더라도, 사실은 지식체계 전체의 수정을 인도하는 한 준칙; 최소 손상의 준칙(maxim of minimum mutilation)²⁴⁾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2. 분석성에 관한 型式的 試驗基準

型式的 基準에 따르면 분석성은 관련된 다른 개념들으로써 설명된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의미”; “인식적 동의성”; “필연성”-“진리치 보존적 상호교환가능성”; “의미론적 규칙” 내지 “논리적 요청”과 “의미 요청”등. 이들 중 전자들은 자연언어에 있어서의 분석성을, 후자들은 인공언어에 있어서의 분석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2.1. 자연언어에 있어서의 분석성

분석적 진리는 언어에 의한 진리라 규정되며, 그 기준은 앞에서 보듯 “논리적 진리” 및 “(인식적) 동의성”의 두 개념으로 얻어진다. 또 인식적 동의성은 “眞理値 保存的 相互交換可能性”(interchangeability salva veritate)이란 개념으로 설명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준거틀(frame of reference)로 삼고 있는 언어가 포함하는 어휘에 따라 상이한 효력을 발휘한다. 예컨대 그 준거틀을 外延的 言語²⁵⁾(extensional language)로 제한시키면, 진리치 보존적 상호교환가능성으로는 언어 표현간의 外延的 同一性²⁶⁾(coextensionality)밖에 확인할 수 없다.²⁷⁾ 반면 “필연

24) 기존지식체계 전체에 최소의 수정을 가하려는 경향.

25) 외연이 동일한 언어표현들을 상호교환해도 그 언어내의 모든 문장의 진리치가 변하지 않는 언어.

적”(necessary)란 어휘를 포함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이 동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1) 필연적으로 모든 총각은 총각이다. (Necessarily all bachelors are bachelors.)

1') 필연적으로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Necessarily all bachelors are unmarried men)

2) 필연적으로 모든 심장을 가진 동물은 심장을 가진 동물이다. (Necessarily all creatures with a heart are creatures with a heart)

2') 필연적으로 모든 심장을 가진 동물은 콩팥을 가진 동물이다. (Necessarily all creatures with a heart are creatures with kidneys.)

위에서 문장 1), 2)는 진인 데, 1) 문장에 동의어를 대체해서 얻은 문장 1')는 진이지만, 2) 문장에 외연만 동일한 표현을 대체해서 얻은 문장 2')는 위이다. 결국 “필연적”이란 어휘를 받아들인다면, 이를 포함하는 문장내에서의 진리치 보존적 상호교환가능성으로 동의성을, 나아가서 분석성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1)와 2)의 진리치를 구별하기 위해 쓰여진 “필연적”의 의미가 아직 명료하지 않으며, 1')는 진이지만 2')는 위라는 것의 설명은 오히려 1')는 분석적이지만 2')는 종합적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는 데 있다.

1')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2') 모든 심장을 가진 동물은 콩팥을 가진 동물이다.

결국, “의미”, “분석성”, “동의성”, 및 “필연성” 등의 내포적 개념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일상적으로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도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 설명되는 외에는 적절한 적용기준이 주어지지 않다. 주어진 것은 다만 이들의 가장 명료한 예들이고, 다른 것들(그처럼 명백하지 않은 예들)도 이와 같다는 주장뿐이다. 이때 실지로 근거가 되는 것은 직관인데, 잘못된 명백한 사실로 존재하는 직관이 아니라, 직관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直觀的 意味論”(intuitive semantics)에 있다. 이는 분석적 진리와 종합적 진리를 극단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세계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유발한다. 적어도 이 직관은 양분법이 아닌 ‘점진주의’(gradualism)로도 설명될 수 있다.

26) 따라서, 동의성은 거꾸로 言語에 의한 外延的 同一性(co-extensionality by language)이라 정의될 수 있다.

27) 예컨대 외연적 언어에서는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 간의 동의성을 “심장을 가진 동물”과 “콩팥을 가진 동물” 간의 외연적 동일성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다.

1.22. 인공언어에 있어서의 분석성

Carnap은 양분법에 대한 Quine의 비판을 意味論的 規則의 일부로서 意味要請(meaning postulates)들을 도입함으로써 각하할 수 있다고 한다.²⁸⁾ 한 人工言語는 그 規程, 즉 意味論的 規則(semantic rules)들을 결정함으로써 완전히 구성되는데, 이것의 일부가 論理要請(L-postulate)과 意味要請(meaning postulate)이다. 전자는 논리적 진리의, 전자와 후자의 결합은 분석적 진리의 기준을 제공한다. 요컨대, 분석적 진리는 한 언어가 도입되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Carnap의 人工言語模形은 다음 셋중의 하나일 것이다.

1. 인공언어는 자연언어와 무관하다 : 인공언어의 설정은 임의적이고, 어떤 부분에 "분석적"이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임의적이다. 다만, 이런 명백한 임의성은 자연언어의 분석성의 모형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2. 인공언어는 한 자연언어의 단순화된 기술이다 : 이는 자연언어에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規程 및 구별을 단순화해서나마 재현한다. 그러면 인공언어의 설정은 경험적 가설이며, 인공언어의 분석성은 그에 상응하는 한 자연언어의 기존적 특성에 의존해야 한다. 앞에서 아직 그 특성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했고, 다음 절에서 언어행동에 관련해서 그 구별의 타당 여부를 고찰하겠다.

3. 인공언어는 언어일반의 골격을 단순화해서 재현하고, 분석-종합의 구분도 언어일반의 형식적 성격이다. 여기서는 이처럼 해석될 경우 Carnap의 입장의 타당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과제는 변수 'S'와 'L'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들간의 한 관계, 즉 "진술S가 언어L에 대해서 분석적임"을 형식적으로 정비된 규칙을 가진 언어를 탐구함으로써, 이 관계에 대한 일반적 해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그런데, Carnap의 인공언어 L_0 에서 분석성에 관한 해명을 보면, S는 L_0 의 의미론적 규칙에 의해서 참일 경우에 또 그 경우에만 L_0 에 대해서 분석적이다(S is analytic for L_0 iff S is true according to the semantic rules of L_0). 여기서는 분석적이란 개념이 의미론적 규칙이란 개념으로 대치될 뿐, 다시금 의미론적 규칙이 그것을 포함한 언어와 가지는 관계에 대한 일반적 해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L_0 이외의 어떤 언어가 주어졌을 때 그 언어의 의미론적 규칙, 내지 분석적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 개개 언어들의 의미론적 규칙, 내지 분석적 진리간의, 무엇이라고 불린다는 가족 유사성만 있을 뿐, 각각의 언어들내에서

28) Carnap, "Meaning postulate."

갖는 기능상의 공통점은 해명되지 않고 있다.

또 인공언어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언어, 자연언어와 의미론적 규칙들의 순서쌍(ordered pair)이라 한다면, 이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언어와 분석적 진리들의 순서쌍이라 하는 것과 같은데, 분석적 진리의 근거는 결국 명시적 임의규약(explicit convention)에 두어진다. 이런 모형으로서 자연언어 일반에까지 확장되는 분석성 개념을 설명할 수 없음을 명백하다 : 자연언어에는 임의로 결정된 분석적 진리들의 집합은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Tarski의 진리개념의 의미론적 정의(semantic definition of truth)에 따르면 일정한 표준형에 따르고 어휘가 확정된 모든 언어에 대해서 그 언어내에서 참임(true-in-L)은 반복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논리적 술어들만 확정된다면 논리적 진리의 형식적 정의도 주어진다.²⁹⁾ 반면 양자의 중간개념인 “분석적 진리”에 관해서는 그러한 형식적 정의는 주어지지 않고, 다만 무한히 많은 것들 중의 단편적 예들만이 제시되고 있다. Quine이 內包(intension)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분석적”이란 개념은 거부하지만, “진리”, 및 “논리적 진리”의 개념들은 받아들임은 적어도 이와같은 차이에 근거한다.³⁰⁾

1.3 분석성에 관한 行動主義的 試驗基準

Quine은 언어를 “현재에 있어서 言語行動에의 傾向性들의 複合”³¹⁾으로 본다. 모든 언어의 차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 나타나며, 언어는 과거의 자극으로 습득된 것인데, 이는 그 자극들이 제공하는 “부수적 지식”(collateral information)의 습득과 병행한다. 이 절의 문제는 사실의 습득과 병행해서 얻어진 언어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긍정 내지 부정하는 반응에서 부수적 지식에 기인하는 요소와 순수히 언어에 기인하는 요소를 가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Quine의 양분법 비판에 대한 Carnap의 마지막 응수는, 이와같은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그 구

29) 이 글 2장 참조.

30) Carnap과 Stegmüller는 Quine의 양분법에 대한 거부가 Quine에 있어서 내포 일반에 대한 회의적 태도에 근거한다고 본다.

Stegmüller, Hauptströmungen der Gegenwartsphilosophie, Bd. II, p. 236.

그러나, 이런 견해는 Quine이 상기 두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31) “(language as) the complex of present dispositions to verbal behavior.”

Quine, Word and Object, p. 27. Quine은 “경향성”으로 물리적 상태 내지 구조를 가르친다. “Each disposition, in my view, is a physical state or mechanism.”

Quine, The Roots of Reference, p. 10.

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³²⁾ Quine은 고찰의 단위를 촉발적 자극(prompting stimulation)에 잇달아 몰음으로써 긍정이나 부정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으로 삼고, 이 입장의 근거가 희박함을 보인다.

언어행위(linguistic behavior)를 관찰해서 직접 얻어지는 것은 한 문장이 어떤 상황-자극적 상황(stimulus situation)하에서 긍정 또는 부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문장이 동의되어질 자극적 상황의 집합-肯定的 刺戟意味(affirmative stimulus meaning)와 부정되어질 자극적 상황의 집합-否定的 刺戟意味(negative stimulus meaning)의 순서쌍(ordered pair)으로서 刺戟意味(stimulus meaning)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차 및 시간차를 가지는 데,³³⁾ 주체와 시점의 변동에 따라 주체가 소유하는 부수적 지식의 양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문장의 자극의미의 비교만으로는 그 일치 또는 불일치가 언어의 의미에만 근거하는지, 아니면 언어와 함께 습득된 부수적 지식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는지가 어려울 수 없다.

그렇지만, 한 시점에서 한 주체가 보유하는 지식은 일정하고, 따라서 두 문장의 內主觀的 刺戟同意性(intrasubjective stimulus-synonymy)은 부수적 지식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의미의 문장이 동일한 자극의미를 갖는 경우를 제거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사회성원 모두에 대해 타당한 경우인 社會化된 내주관적 자극동의성(socialized intrasubjective stimulus-synonymy)은 사회성원 간의 지식의 차이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제거할 수 있다. 후자에 상응하는 사회적으로 자극분석적인 문장(socially stimulus-analytic sentence)이란 사회성원 모두가 어떤 자극적 상황하에서도 긍정하는 문장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위 성격이 적용된다.

그러면 언어행위(linguistic behavior)로부터 구성해 낸 두 개념; "사회화된 내주관적 자극동의성"과 "사회화된 자극분석성"이 각기 동의성과 분석성의 적절한 행동주의적 모형이 될 수 있는가? 전자의 두 개념은 부수적 지식의 개인차의 영향은 제거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부수적 지식과 순수한 언어의 의미를 구별해 내지는 못한다.³⁴⁾ 여기서 Quine은 잘못된 것은 언어에 대한 行動主義的 接近이 아니라, 직관적 의미론이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내포적 개

32) Carnap, "Meaning and synonymy in natural language." 에서

33) 또 자극의미는 자극이 주어지는 시간(modulus)에 대해서도 상대적(relative)이다.

34) 그래서 그 개념은 아직도, 예를 들면, "어떤 집도 우리나라보다 크지 못하다." 와 "모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는 두 문장의 구별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반면에 전자는 경험적, 후자는 분석적으로 참이다)

념들 ; 의미, 동의성 및 분석성등이라고 결론짓는다. 요컨대, 자극에 대한 언어적 반응에서 의미에 의한 요소와 사실에 의한 요소를 가려낸 지식의 개인차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까지가 한계라는 것이다. 언어와 사실의 불가분성을 주장하는 Quine 의 견해는 다음 글에서 간략하게 제시된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 어떤 특정집합 Σ 가, 그 자극들 각각이 부수적 지식의 도움없이도 단적으로 어떤 경우 문장 S (occasion sentences)에 대해 동의 를 촉발(prompt)하기에 충분한 바로 그런 자극들만을 포함한다. 또 다른 집합 Σ' 에 속하는 자극들이 마찬가지로 S에 대해 동의를 촉발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런 효과는 오히려 어떤 광범위하게 유포된 부수적 지식 C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대신에 꼭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도 좋지 않을까? 지식 C를 획득함으로써, 암암리에 S의 意味 자체를 변경시켜서 Σ' 의 원소들이 이제는 Σ 의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단적으로 [동의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도록 함이 편리하게 되었다고. 나는 제안하건대, 우리는 어떻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 역사적 투시력(clairvoyance) 조차도, 비록 그것이 C를 습득함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들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구별을 드러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도 이에 발맞춰(pari passu)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구별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극으로 촉발되면 경우 문장에 동의하거나 부인하는 성향들의 집합의 진화에 반영되어 있는, 자연에 대한 적용의 진화일 뿐이다. 이런 성향들은 세계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순수하지는 않다고 한다면, 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향들은 칙전이 불가능한 용액속에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³⁵⁾

후에 Quine 은 분석적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제안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 단어들을 배움으로써 그것이 진임을 배운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이다.”³⁶⁾ 이 경우에도 여전히 분석-종합의 구분은 정도의 문제다. 개인간의 언어습득과정은 천차만별하고, 어떤 문장은 많은 사람이 그 단어들을 배움으로써 그것이 진임을 배우는 반면, 어떤 문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 중에서 전자의 극단적 경우를 분석적이라 불러도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경우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어떤 것이 분석적인지 구별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런 입장에서 분석적 진리가 절대적으로 수정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음도

35) Quine, "Meaning and translation," p. 466.

36) Quine, The Roots of Reference, p. 80.

명백하다.

1.4. 分析性 直觀의 非兩分法的 說明

이상의 검토는 분석-종합의 인식론적 양분법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분석성 또는 동의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자명한 직관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직관적 친밀성은 상기 제 철학적 시도들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별되어야만 할 무엇이 있다는 입장의 근거가 된다.³⁷⁾ 이제 이 직관을 비양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Quine 은 어휘들을 다음 세 부류로 나눈다.

a. 觀察語彙(observation³⁸⁾ terms): 이들은 문장으로 쓰여지면 관찰문장을 이룬다.

예. "에베레스트산," "토끼."

b. 非觀察的 경우문장(unobservational³⁸⁾ occasion³⁸⁾ sentence)를 이룰 수 있는 어휘들.

예. "총각," "동기(sibling):"

c. 체계적인 이론과학의 어휘.

a에 속하는 어휘는 사회성원간의 자극의미차가 없다. 그래서 대상과 직접 관계함으로써 습득된다. 반면에 b에 속하는 어휘의 자극의미는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하에서 습득되기 때문이다.³⁹⁾ 또 이들은 그 적용기준이 되는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의 수가 비교적 적다.⁴⁰⁾ C에 속하는 어휘는

37) 사실상 분석-종합의 구분은 직관적 자명성에 호소해서 양자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는데서 성립한다. 예로 Schlick, "Is there a factual a priori?" p. 282.

Grice/Strawson, "In defense of a dogma." p. 88 f.

38) "경우문장"(occasion sentence)은 "지속문장"(standing sentence)의 상대 개념인데, 그것에 대한 동의나 부인을 위해서 반드시 현재의 촉발적 자극(prompting stimulus)이 요구되는 문장을 말한다. 반면 지속문장이란 현재의 촉발적 자극 없이도 과거의 그 문장에 대한 동의나 부인을,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되풀이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한다. "관찰문장"이란 경우문장 중에서 그 자극의미가 사회성원 전체에 대해 일치하는 문장을 말한다.

39) 이 양자는 각기 Russell의 인지에 의한 지식(knowledge by acquaintance)와 기술에 의한 지식(knowledge by descriptions)에 상응한다.

40) b에 속하는 어휘의 극단적 경우가 Putnam의 단일기준적 어휘(one-criterion word)이다.

사회성원들간에 자극의미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b에 속하는 어휘와 같다. 반면 전자는 다른 어휘들과의 결합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후자와는 다르다.⁴¹⁾

동의성-직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b에 속하는 어휘들에 대해서 그것이 습득될 때 주어진,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예를 들면, “총각”에 대해서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외연적 일치)를 부정한다면, 그 단어(예, “총각”)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해되지 못한 외국어를 들었을 때와 같은 감정이 일어난다. 반면 C에 속하는 어휘의 한 관계가 부정되더라도 그 어휘의 내용, 즉 지식체계내에서의 전체적 역할은 그다지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에는 위와 같은, 의미가 바뀌고 있다는 감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분석성-직관은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익히는 명백한 사실들을 부정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 이처럼 명백한 지식이 부정된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함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이상의 설명이 적절하다면 이런 감정이 반드시 이원적으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세 부류의 어휘간의 구별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에 일어나는 직관이 아니라, 이 직관을 그릇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식론적 양분법임이 드러난다.

2. 論理的 真理의 문제

分析-綜合의 구분에 있어서는 구별기준자체가 문제성이 있음을, 또 이 문제에 대한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그 구분이 다만 정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의미와 사실은 구별될 수 없었고, Quine의 입장은 구별자체가 독단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논리적 진리는 순전히 언어에 의한 진리(truth purely by virtue of language), 즉 분석적이라는 견해를 살펴보자.

우선 논리적 진리의 외연적 기준은, 논리적 어휘만 확정된다면, 명확히 주어질 수 있다 : “참인 문장들은 그것이 오직 논리적 어휘들만을 必隨적으로 포함할 경우 논리적 진리이다.”⁴²⁾ (The logical truths, then, are those true sentences which involve only logical words *essentially*). 여기서 논리적 진리의 기준은 주어지지만, 이 정의 자체는 논리적 진리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인 언어이론과는 무관

41) 이들은 Putnam의 법칙군어휘 (law-cluster word)에 해당한다.

42) Quine, “Carnap and logical truth” p. 110. 또 “Two dogmas of empiricism”에서의 정의 참조. p. 22f.

하다. 따라서 이제 언어이론의 타당여부가 문제시된다.

2.1. 논리적 진리의 言語理論(I)에 대해서

言語理論(linguistic doctrine)은 일단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논리적 진리에 관한 연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견해차는 논리적 어휘들의 용법(즉, 의미) 차의 증거다.”(Deductively irresolvable disagreement as to a logical truth is evidence of deviation in usage(or meanings) of logical words.)⁴³⁾ 일견 이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근거들이 있다.

1. 보통 진리성의 확인이 언어와 사실에 모두 의존하는 반면, 논리적 진리는 언어적 특성으로만 확인가능하다.

2. 우리들의 논리와는 다른 원리를 가진 논리가 있다면, 후자에서는 논리적 어휘들이 전자에서와는 다른 방식, 즉 다른 의미로 사용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3. 어떤 외국어를 번역했을 경우 그 외국어 화자들이 논리적 진리를 부정함이 드러난다면, 이는 그 번역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그러나 이들은 마찬가지로 초등논리(elementary logic)⁴⁴⁾의 明白性(obviousness)으로써도 설명될 수 있다.

1은 대상일반이 가지는 명백한 특성을 논리적 진리가 표현한다고 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 $(x)(x=x)$ ”가 언어에 의해서만 참임이 확인되는 것은 이 문장이 언어(특히 “=”)의 용법에 의해 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것은 위 문장이 모든 대상의 명백한 특성인 보편적 자기동일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명백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이 때 사용된 언어의 의미변동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논리적 진리는 명백하다. 따라서 2가 설명된다.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열렬한 긍정을 부정으로 번역한 경우다. 또 논리적 진리와 같이 명백한 진리에 대한 반응은 열렬한 긍정일 것이다. 따라서 3이 설명된다.

여기서 논리적 진리는 명백하다는 불명료한 주장보다도 언어이론이 더 설명하

43) Quine, “Carnap and logical truth,” p. 112. 연역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견해차란 문장의 진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을 쌍방이 모두 진이라고 동의하는 문장 및 그것으로부터의 연역으로서 해소시킬 수 없는 견해차를 말한다.

44) 진리함수론(truth-function theory), 양화이론(quantification theory) 및 동일성이론(identity theory)를 포괄한다.

는 바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데, Quine은 전자가 그렇듯이 후자도 설명력이 없는 似而非理論(pseudo-doctrine)에 불과하다고 결론짓는다.

2.2. 논리적 진리의 言語理論(Ⅱ)에 대해서

언어이론은 “논리적 진리는 任意的 言語規約(linguistic convention)에 의해 참이다.”거나 “정의에 의해 참이다.”고 표현되기도 한다.⁴⁵⁾ 과학적 작업에서 공리나 정의는 다만 그것이 편리(convenient)하다거나, 단순(simple)하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정당화도 없이 선택되고 제기된다. 이처럼 공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1. 立法的 公理化(legislative postulation): 엄격한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공리를 정당화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2. 推論的 公理化(discursive postulation): 개념체계의 수정에 있어서 기존 진리 중에서 일부를 공리로 설정하는 경우.

이 중에서 논리적 진리가 언어규약 내지 정의에 의한 진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입법적 공리화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분이 공리를 선택하는 행위차원의 구분일 뿐, 이미 선택된 공리나 정의의 지속적 특성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는 이론체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추론적 공리화로 도입된 공리와 마찬가지로 입법적 공리화로 도입된 공리에 대해서도 수정가능성이 검토되고, 또 수정되는 예를 볼 수 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공리의 도입은 임의적이지만 그 진리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넓은 의미에서의 경험의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이론(Ⅱ)은 논리적 진리의 분석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Quine은 전자가 과학적 작업에서 공리나 정의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다고 한다.

2.3. 경험과학의 일부로서의 논리학

이제껏 논리학이 제 경험과학과는 전혀 다른 작업이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을 살폈고, 이제 논리학의 성격에 관한 Quine의 견해를 살핌으로써 철학 일반에 관한 그의 견해에 대한 고찰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논리학도, 자연과학의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식체계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경험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 경험적이란 말이 경험에 대한 직접적 보고이거나, 그것의 일반화임을 뜻한다면, 따라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에 의해 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 논리학은 명백히 경험적 학

45) 이 주장을 언어적 임의약정주의(linguistic conventionalism)이라고도 부른다.

문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위 경험과학의 많은 부분, 아마도 전체도 또한 경험적이 아닐 것이다. 경험과학의 진술들이 이런 의미에서 경험적이라는 주장이 환원주의이고, 또 경험적이란 말을 이처럼 좁게 해석함이 양분법이 전제하는 결함이다.

반면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이론이 다른 진술체계들과 유기적으로 연관하여, 이들을 체계화함으로써 경험을 보다 적절히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적이라면, 논리학도 지식체계의 보다 중심부에 속할 뿐 동일한 의미에서 경험적이며, 양자의 차이는 직접적 경험에 관계하는 우회성, 지식체계 전체에 기여하는 체계화의 정도에 있다. 논리적 진술들은 어떤 한정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개별과학, 나아가서 상식적 신념체계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정돈하고 있는 포괄적 지식체계의 일부로서 경험의 판정을 기다린다. 最少損傷의 원리(maxim of minimum mutilation)는 지식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논리학의 수정을 억제하지만, 지식체계의 수정을 인도하는 또 하나의 원리인 單純性의 원리(principle of simplicity)는 논리학에 대해서까지도 수정가능성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배중률을 거부함으로써 양자역학을 단순화하려는 직관주의의 제안에 대해 Quine은 회의적이지만, 이 입장은 지식체계의 단순성을 고려해서 논리학도 수정될 수 있다는 통찰에서 Quine과 일치한다.

結 論

1. 본론에서는 分析-綜合의 양분법에 관한 Quine의 비판과, 그 일환으로서 논리적 진리의 성격에 관한 그의 견해를 일별해 보았다. Kant를 상기시키는 저 양분법은, Quine의 입장에서, 그 부당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지하기 어려운 입장이 드러났다. Quine은 이 난점들을 새로운 기준을 찾아냄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분법 자체를 포기하고, 대안으로서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우리는 모든 철학적 논쟁이 바로 이와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고, 또 전개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인 데, 이것이 Quine의 견해와 일치함은 기쁜 일이다. 다음 과제를 위해서, 본론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Quine의 입장을 아래 두 명제로 요약해 보자.

- a. 점진주의(gradualism) : 분석과 종합, 언어와 사실의 구분은 정도의 문제다.
- b. 분석적 진리란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던, 原則上 修正不可能한(irrevisable in principle)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 적어도 그 존재를 인정함은 비경험적 독단이다.

2. 명제 a는 본질주의적 철학의 한 형태, 경험주의적 형태(an empiricistic version of essentialistic philosophy)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며, 생각컨대 경험주의자로서의 Quine은 이로써 본질주의적 철학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취한다. 서론에서의 제안과 상응하여, 이것을 Quine의 非本質主義的 傾向이라 규정하겠다.

이제 철학이 일차적 대상이 아닌 언어를 다룬다는 사실이 곧 철학과 경험과학의 근본적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철학적 작업이 비록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상을 언급하는 언어에 관해 말하는 意味論的 上乘(semantic ascent)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간의 심연을 인정하지 않는 Quine에 있어서는 이것이 철학과 경험과학을 구별시키는 성격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경험과학도 의미론적 상승에 의해 추구될 수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은 실제로 이와같이 추구되고 있음을 본다. 예컨대 상대성 이론의 정당화에 있어서는 상이한 개념체계들간의 설명적 유용성이 비교되는 것이다. 이처럼 철학과 경험과학간의 질적 차이를 부정하는 非本質主義的 哲學觀은 다시 철학을 경험과학과의 연속선상에서, 경험과학의 일부로서 파악하게 하는데, 이는 경험과학이 추구하는 이상의, 절대적 확실성의 추구, 즉 第一哲學의 이념의 포기를 전제로 한다. 위 명제 b는 바로 그 근거를 제공한다: 존재하지 않는 무엇-원칙상 수정불가능한 진리의 추구란 무의미하다.⁴⁶⁾ 이제 철학은 지식체계내부에서 그것의 진리성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것의 정돈을 목표로 삼는다. 이 때 유용한 방법이 의미론적 상승이다. 철학은 앞에서 논리학이 경험적임과 동일한 의미에서 경험적이다. 과거의 어떤 철학자가 자기 철학이 무전제적이라 주장한다면, Quine은 이는 자기자신의 작업에 대한 그 철학자의 오해일 뿐 그는 사실상은 지식체계의 일부로서 경험적 가설(empirical hypothesis)을 제기할 뿐이라고 답할 것이다.

실재가 어떠한가를 공들여 추측함은 광의의 과학자들의 과제이다; 그리고,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실재적인가하는 것은 그 질문의 일부(存在論)이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존재하는 지를 아는가하는 질문도 단적으로 그 질문의 일부(認識論)이다. 마지막 중재자는, 아무리 부정형적일지라도, 소위 과학적 방법이다.⁴⁷⁾

46) 정도의 차인 분석-종합의 구분에서 어디 이상이 절대적으로 분석적이라는 주장은 자의적이다. 이처럼 명제 b가 명제 a의 비호하에서 내세워짐을 고려한다면 위 철학관 전체는 Quine의 비본질주의적 경향에 근거한다고 해도 좋겠다.

47) Quine, *Word and object*, p. 225.

3. Stegmüller 에 의하면 Quine 의 논문 "경험주의의 두 독단"과 더불어 "철학에 있어서 脫實證主義的 時期(nachpositivistische Ära der philosophie)가 도래했다."⁴⁸⁾ Quine 은 제일철학의 이념에서 이탈함으로써 전통철학의 문제들의 의의를 재해석하고, 이 문제들을 다루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의미론적 상승을 택한다. 비록 언어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유일한 영역이거나, 철학적 문제가 전적으로 이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상이한 개념체계간에 그 유용성이 비교되는 철학적 토구는 이들이 공유하는 언어의 영역으로 내려올 것이 요청되며, 이가 바로 의미론적 상승이 지향하는 바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통철학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탈실증주의적 분석철학의 한 중요한 특징으로 볼 것이고, Quine 은 분석철학의 본질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질주의적 철학관, Wittgenstein 적 철학관을 벗어나 전통철학을 재조명함으로써 철학의 실증주의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Quine 의 철학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Wittgenstein 이전의 전통적 철학관, 특히 Frege 나 Russell 의 그것에로의 복귀를 뜻한다.

48) Stegmüller, Hauptströmungen der Gegenwartsphilosophie, Bd. II, p. 223.

參 考 文 獻

- Ayer, A.J. *Language, Truth and Logic. ch. 4, Penguin Bks.*, 1971.
- Carnap, R. [MN] *Meaning and Necessity. Chicago University*, 1956.
 "Empiricism, semantics and ontology." MN.
 "Meaning postulates." MN.
- Donnellan, K. "Necessity and criteria." RPL.
- Davidson, D/Harman, G. [SN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ordrecht : D. Reidel*, 1971.
- Feigl, H/Sellars, W.(eds.)(RPA) *Readings in Philosophical Analysis.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49.
- Fodor, J. F. "On knowing what we would say." RPL.
- Fodor, J. F /Katz, J.J. (eds.) [SL]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 N.J.: Prentice-Hall Inc.*, 1964.
- Goodman, N. "On likeness of meaning." SPL.
 "On some difference about meaning." *Analysis* 13 (1953).
- Grice, H. P/Strawson, P. F. "In defense of a dogma." RPL.
- Hempel, C.G. [ASE]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 The Free Press*, 1965.
 "Empiricist criteria of cognitive significance." ASE.
 "A logical appraisal of operationism." ASE.
 "Problems and changes in the empiricist criteria of meaning." RPL.
- Katz, J.J.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 Harper & Row*, 1966.
Linguistic Philosoph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71.
 "Analyticity and contradiction in natural language." SL.
- Kneale, W&M. *The Development of Logic. ch. X. 5. Oxford : University*, 1962.
- Kripke, S. "Naming and necessity." SNL.
 "Identity and necessity." NNN.
- Lewis, C. I. "A pragmatic conception of the a priori." RPA.

- "The modes of meaning." SPL.
- Linsky, L (ed). (SPL) *Seman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Urbana, Il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2.
- "Analytic/synthetic and semantic theory." SNL.
- Putnam, H. (MLR)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 University, 1975.
- "The analytic and the synthetic." RPL.
- "It ain't necessarily so." RPL.
- "Is semantics possible ?" NNN.
- "The meaning of meaning." MLR.
- Quine, W. V. O. (FLPV)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2nd. ed. New York : Harper & Row, 1961.
- (WP) *The Ways of Paradox*.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 Philosophy of Logic*.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1970.
- The Roots of Reference*. La salle, Ill. : Open Court, 1974.
- "On what there is." FLPV.
- "Two dogmas of empiricism." FLPV.
- "Truth by convention." WP.
- "Carnap and logical truth." WP.
- "On Carnap's views on ontology." WP.
- "Meaning and translation." SL.
- Rosenberg, J. F. / Travis, C. (eds.) (RPL)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1.
- Schlick, M. "Is there a factual a priori ?" RPA.
- Schwartz, S. P. (ed.) (NNN) *Naming, Necessity and Natural Kinds*. Ithaca / New York : Cornell U.P., 1977.
- Searle, J. R. "Proper names." RPL.
- Stegmüller, W. *Hauptströmungen der Gegenwartphilosophie*. Bd. II. 6., erweiterte Aufl. Stuttgart : Kröner. 1979.
- Waismann, F. "Analytic—synthetic." *Analysis* (1949—1952), 5 부분.
- White, M. G. "The analytic and the synthetic : an untenable dualism." SPL.